

**사업체 매매**  
오렌지카운티 터스틴·어바인 지역에서  
성업중인 중식당(한국식/미국식)  
리스기간 5년 이상/ 순이익 2만불  
(949) 501-8555 Leah Ivy Chang

**부동산 · 경제**  
BUSINESS · REAL ESTATE

**전 당 포**  
LC3019-0990  
가주 최대 규모 / 최고 가격 보장  
한인 최초 감정사 / 절대 비밀 보장  
각종 명품, 귀금속, 시계  
(714) 647-0005 / (714) 647-0007  
318 W. 4th St., Santa Ana, CA 92701

**미 7월 소매판매 감소**



▲ 할리우드 지역의 한 쇼핑몰. 사진=shutterstock

미국의 7월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감소했다.

1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이날 7월 소매판매가 전달 대비 1.1% 감소했다고 밝혔다. 시장 전망치는 0.3% 감소였다.

소매판매가 감소세를 보인 주요 원인은 신차 및 트럭 판매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자동차 딜러점에서

의 판매는 3.9% 감소하며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완성차 업체들은 최근 반도체 부족 현상으로 신차를 충분히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자동차 구매는 전체 소매판매의 약 5분의1을 차지한다.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지난달 0.4% 감소했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판매매출이 감소했다. 미국인들은 건축자재, 가구, 의류, 식품, 취미용품 등에 지출을 줄였다. 인터넷 유통업체들의 매출도 크게 줄었다.

판매가 증가한 곳은 주유소와 식당이었다. 소비자들의 이동이 증가하면서 휘발유 가격은 1년 전에 비해 크게 뛰었다. 식당 매출은 7월 1.5% 증가했는데, 최근 5개월 중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시장은 델타변이 추이를 주시하고 있다. 아직까지 델타변이가 얼마나 소비지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객관적 자료는 없지만, 만약 확산이 계속 지속된다면 피해가 가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WSJ "연준, 11월 테이퍼링 시작"**



▲ Fed 건물 전경. 사진=shutterstock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고위 인사들은 경제 회복이 계속된다면 3개월 뒤 양적 완화 축소를 시작하기로 합의하는 데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연합뉴스'가 월스트리트저널(WSJ)의 전날 보도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연준은 코로나19 사태 후 경기 부양을 지원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고, 매달 1천200억 달러 상당의 미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하고 있다.

WSJ은 이러한 자산 매입 규모를 축소하는 이른바 '테이퍼링'을 연내 시작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 매체는 최근 두 달 연속 고용 지표가 예상 이상으로 잘 나오면서 연준이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계획을 발표하고, 이르면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에 실제로 착수할 가능성이 커졌다고 전했다.

연말 또는 내년 초 시작에 무게가 실렸던 테이퍼링 일정을 앞당기자는 논의는 연준이 지난해 말 전제 조건으로 제시한 평균 2%의 물가상승률과 최대 고용이라는 목표치를 향한 "상당한 추가 진전"을 거의 달성했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특히 미국의 집값 급등 때문에 테이퍼링 시작을 서둘러야 한다고 보는 연준 인사도 적지 않다고 WSJ은 전했다.

**미 납세 대상 61% 작년 연방소득세 면제**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미국에서는 1억700만 가구가 연방 소득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CNBC 방송은 전날 싱크탱크인 조세정책센터(TPC)의 보고서를 인용해 지난해 연방 소득세를 부담하지 않은 가구는 전년보다 40.7% 늘어 전체 납세 대상자의 61%에 달했다고 보도했다. 한해 전인 2019년에는 연방 소득세 면제 가구가 7천600만 가구로 전체 납세 대상의 약 44% 수준이었다.

TPC는 코로나19에 따른 실업률 증가와 다양한 세금 공제 혜택 등을 비부담 가구의 급증 배경으로 꼽았다.

많은 가구가 연방 소득세 납부 대상에서 빠지면서 지난해 상위 20% 납세자가 부담한 연방 소득세는 전체의 78%를 차지, 2019년의 68%보다 부담 비율이 상승했다. 상위 1%의 부담 비율은 2019년 25%에서 지난해 28%로 높아졌다

TPC는 올해는 실업률 개선 등의 영향으로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않는 납세자 비율이 57%로 낮아지고 2022년에는 42%로 추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10년간 연방 소득세 면제 비율은 44% 안팎이었다.

CNBC는 연방 소득세 면제 비율 증가로 의회의 부유층 과세 논의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ONE GROUP REALTY**  
www.OneGroupRealty.com  
**상담 전문 Charles Lee**  
714.614.2426  
charleslee@onegrouprealty.com  
Charles Lee/Broker  
Lic. #01361071, 01861239  
**부동산은 브로커 찰스 리에게!**  
집/ 커머셜/ 오피스/ 창고/ 비즈니스  
성심 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LA HABRA - COMMERCIAL FOR LEASE**  
SMALL RETAIL/ OFFICE SPACE  
A. 912 SQ.FT. [STREET FRONT OFFICE/RETAIL SPACE]  
B. 400 SQ.FT. [OFFICE SPACE]  
\*MODIFY GROSS LEASE (NO NNN)  
\*MOVE-IN READY  
\*ONSITE PARKING  
**\$1.30 PER SQ.FT.**

**목집 Cypress - For Sale**  
**IN-ESCROW**  
**\$615,000**  
CYPRESS - 최고 학군 LUXURY CONDO  
2 BEDS + 2 BATHS  
1,042 sq.ft.  
\*CUL-DE-SAC  
\*2 CAR Attached Garage  
\*Oxford/Cypress High/ Lexington Jr. High  
Landell & Arnold Elementary

**CYPRESS - 단층 가정집**  
**IN-ESCROW**  
**\$890,000**  
DETACHED  
3 BED + 2 BATHS 1,480 sq.ft.  
5,052 sq.ft. (LOT)  
\*안전하고, 조용한 단지!!! \*최고학군  
\*High Ceiling \*Sunroom

**LA MIRADA - DETACHED 가정집**  
**\$949,000**  
[HAWKS POINTE GATED COMMUNITY]  
4 BED + 3 BATHS  
2,448 sq.ft. 4,614 sq.ft. (LOT)  
\*안전하고 조용한 동네 GATE 단지  
\*VIEW, VIEW, VIEW!!!  
\*한국타운, 마켓, 쇼핑몰 근방

2020 COVID 사태 이후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서 소유한 부동산 빠른 시기에  
정리도와드립니다. 어떤 상태 집이나, 건물  
모두 환영합니다. \*무료 상담 받으세요.  
**714.614.2426**

**LA MIRADA - 단층 싱글홈**  
**\$729,000**  
4 BED + 2.5 BATHS  
1,629 sq.ft.  
6,076 sq.ft. (LOT)  
\*안전하고 조용한 동네  
\*한국타운, 마켓, 쇼핑몰 근방

**LA MIRADA - 단층 가정집**  
**\$675,000**  
3 BED + 2 BATHS  
1,682 sq.ft.  
6,870 sq.ft. (LOT)  
\*안전하고, 조용한 동네!!!  
\*아주 저렴한 가격  
\*교통 편리합니다.